

데뷔 초기부터 트위터를 기반으로 일상의 사진과 영상을 선보이며 팬들과 친밀하게 소통했고 청춘의 공감을 얻는 서사를 음악에 담아 세계에 포진한 팬덤 '아미'를 이끌었다. 이들의 트위터는 한국 계정 최초로 1천만 팔로워를 돌파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계정에 등록했다.

● '프로듀스 101'이 탄생시킨 '괴물 신인' 워너원

4~6월 방송된 넷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탄생한 11인조 보이그룹으로 10~20대부터 중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팬을 이끌며 데뷔와 동시에 '괴물 신인'으로 불렸다.

8월 데뷔 공연을 2만 석 규모의 고척스카이돔에서 열었다. 데뷔 앨범 '1X1=1(TO BE ONE)'은 판매량 73만3천 장, 11월 발표한 리패키지 앨범 '1-1=0(NOTHING WITHOUT YOU)'은 60만3천 장 넘게 팔리며 두 장의 총판매량이 130만 장을 돌파했다.

미디어를 발판으로 태어난 이들이 아이돌에 무관심했던 중년 여성들까지 팬으로 합류시키는 현상을 만들어내며 시장 판도를 흔들자 방송사들이 아이돌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드는 흐름도 생겨났다.

■ 스포츠

● 'LPGA 투어 3관왕' 골프선수 박성현



▲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9년 만에 신인상, 올해의 선수상 등을 받은 '슈퍼 루키' 박성현이 12월 4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서 39년 만에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을 휩쓰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017년 LPGA 투어에 데뷔해 7월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데뷔 첫 우승을 거머쥔 데 이어 8월 캐나다오픈에서도 마지막 날 대역전극을 펼치며 우승했다.

'슈퍼루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10월 일찌감치 신인상을 확정했고, 시즌 상금 233만5천883달러로 상금 1위에 올랐으며, 유소연과 나란히 올해의 선수상도 받았다. 평균 타수에서는 2위를 차지해 전관왕 등극은 아깝게 놓쳤으나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처음으로 신인이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11월 초에는 LPGA 투어 신인 최초로 세계랭킹 1위에 올라 1주간 머물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골프장에서 열린 US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를 관전한 후 트위터를 통해 우승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후 11월 방한 국회연설에서 다시 한번 박성현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 '한국 스포츠의 거목' 김윤용 전 IOC 부위원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계 리더로 활약하며 국기(國技) 태권도의 세계화를 이끌다 10월 3일 향년 86세로 타계했다.

외교관의 길을 걷다가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장에 취임하며 스포츠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쌓았다. 1986년 한국인으로는 역대 여섯 번째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선출됐고 이후 대한체육회장, IOC 집행위원과 부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에 힘을 보탰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식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이라는 업적을 이뤘다.

'태권도 대부'로 불리며 국기원 개원과 세계태권도연맹 창설을 주도해 태권도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뇌물 스캔들'에 휘말렸고,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 과정에서 강원도 평창의 유치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오랜 독주에 따른 부정적 평가도 뒤따랐다.

국제

■ 개관

2016년 미국 대선에 이어 2017년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줄줄이 치러지며 새로운 인물이 국제무대 전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취임 이후 좌충우돌 행보로 미국은 물론 세계를 흔들며 뛴다. 중국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시황제' 지위에 올라 '스트롱맨'(Strongman) 전성시대를 알렸다.

유럽에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해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신에 정치인 돌풍을 일으키며 프랑스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은 지지율 급락의 아픔을 겪은 후 안착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 왕위계승자인 모하마드 빈살만은 사우디판 '왕자의 난'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은 성폭행 전력이 폭로됨으로써 몰락했고 이를 계기로 '성폭력, 나도 당했다'는 '미투(Me too) 운동'이 전 세계로 퍼졌다. 미안바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는 군부의 로힝야족 '인종청소'에 방관했다는 비난을 샀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대북 강경책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미국 카터 정부의 외교 브레인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미국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를 만든 휴 헤프너 등은 세상을 떠나면서 생전 활동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화제의 인물

• ‘마이 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2016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돼 2017년 1월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경제, 무역, 외교, 국방, 환경 등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좇는 마이 웨이 행보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식 탈퇴에 이어 세계기후변화협정, 유네스코 등에서도 발을 뺐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 가능성을 위협하며 재협상에 착수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서 수세에 몰린 그는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명령을 내렸다. 거액기부금 납부지지 세력인 유대인을 겨냥한 조치였으나, ‘화약고’ 중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반(反)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며 사회 갈등을 조장했다. 또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사태 등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양비론(兩非論)으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로 표현하는 등 ‘말 폭탄’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압박해 대북 제재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 ‘시황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반열에 올라 ‘시황제’로도 불리며 중국 절대권력자가 됐다.



▲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체대표대회가 10월 18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대회에서 성과보고를 하고 있다.

2012년 말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를 계기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이라는 당·정·군 3권을 한꺼번에 거머쥔 시진핑은 2017년 10월 열린 제19차 당 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편입시켰다. ‘마오쩌둥 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제19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15년 집권의 길을 마련했다. 중국 최고권력기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5명에 측근을 대거 포진시켜 1인 지배체제의 기반을 확보했다.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중국몽(中國夢) 실현 로드맵도 제시했다.

중국의 핵심이익엔 절대 양보가 없다는 단호함과 강경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했다. 북핵 불용이라는 기본원칙과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토대로 이른바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並行)’을 요구하면서 한국·미국 등의 해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유럽의 샤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창당 1년이 안 된 신생정당 ‘앙마르슈’(En Marche)를 이끄는 ‘정치 신예’로 2017년 5월 프랑스 대선에서 기성 정치에 저항하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4세 연상 부인 브리짓 트르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득표에 한몫했다.

당선 후 복지예산 삭감, 노동규제 완화, 부유층 감세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자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후 친기업 정책 등 각종 국정과제가 안착하면서 급락했던 지지율은 반등세를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약화한 틈을 타 마크롱은 지구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밝히자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약속했고, 사드 알 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TV 연설로 사임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하리리 총리와 가족을 프랑스로 초청해 중동지역 ‘피스메이커’로도 나섰다.

• ‘4연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함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지도자로 손꼽힌다. 2005년 처음 총리가 된 메르켈은 2017년 9월 독일 총선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며 최초의 여성 총리, 동독 출신 첫 통일 독일 총리라는 기록에 이어 ‘정치적 스승’인 헬무트 콜 전 총리에 이어 4연임 총리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세웠다.

그러나 이번 연임은 이전과 달리 힘겹게 얻어냈다. 역대 최저 득표율로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두 달간 이어진 자유민주당·녹색당과의 연정 협상이 깨지면서 아직 연정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사민당과의 연정 협상을 추진 중이나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2015년 난민 위기 때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 대거 수용 결정을 내리며 ‘난민 엄마’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이를 빌미

로 극우 정당이 부상하는 등 난민 문제는 메르켈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꺾여온 관계 속에 미국 우선주의를 견제하고, EU 통합과 유로존 개혁, 실업률 감소 등의 문제도 떠안고 있다.

• ‘개혁 아이콘’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제1 왕위 계승자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현 국왕의 아들인 빈살만은 2017년 7월 왕세자이자 사촌인 모하마드 빈나예프 내무장관을 몰아내고 왕위계승자 자리를 꿰찼다.

그는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왕자 11명과 전·현직 장관 등 수십 명을 부패 혐의로 숙청했다. 전 왕세자 아들인 만수르 빈무크린 왕자는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이런 행보는 권력 분점(分占) 관행의 종식을 천명하는 동시에 정경유착 관행에 경고를 받아들여진다.

빈살만은 왕세자로 등극한 이후 사우디 개혁 정책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영화 관람 허가 등 완화 조치를 발표했으며 564조원을 투자해 초대형 미래도시 ‘네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 ‘美 첫 여성 경제대통령’ 재닛 옐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2014년 2월 취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해 2018년 2월 퇴임했다. 연준 의장이 4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는 것은 1970년대 말 17개월 만에 사퇴한 ‘최악의 연준 의장’ 윌리엄 밀러 전 의장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사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였지만 관행에 따라 의장직과 이사직 동시 사퇴를 선택했다.

대표적 ‘비둘기파’란 외부 평가와 달리 2015년 12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2017년 12월까지 총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단력을 보여줬다. 또 10월에는 장기적 ‘양적완화’(QE)로 4조5천억 달러까지 불어난 연준의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작업도 개시해 출구 전략을 충실하게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이사는 2018년 2월 취임했다. 30년 만에 비(非)경제학 학사 출신 연준 의장이 된 파월 지명자는 2012년부터 연준에서 근무한 비둘기파여서 옐런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 ‘트럼프 나팔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과 주지사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됐다. 외교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딛고 2017년 4월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비난 여론을 끌어내 주목받았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발사 시험 때마다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주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자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북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대북 제재에 앞장서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9월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연설하고 있다.

헤일리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워싱턴 안팎에선 헤일리가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반감이 큰 가운데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평가다.

• 짐바브웨 ‘최장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

37년간 짐바브웨를 철권 통치하다 2017년 11월 탄핵 절차를 앞두고 사임한 세계 최장기·최장수 독재자다.

영국 런던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로데지아로 불리던 과거 식민지 시절 영국계 소수 백인의 통치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여 독립투사로 추앙받았다.

영국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1980년 56세로 짐바브웨 총리 중 심제의 초대 총리가 됐지만, 곧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부정 선거를 통해 권력에 집착하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또 부정부패와 사치 행각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재혼한 부인 그레이스는 ‘구찌 그레이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유해 비난받았다.

2017년 93세인 무가베는 그레이스에게 권력을 승계하려다가 이에 반발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탄핵 위기를 맞았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1980년 초대 총리에 오른 뒤 37년간 장기집권하다가 작년 11월 군부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났다.

• ‘추락한 민주화 상징’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며 한때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목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인물로 추락했다.

미얀마 정부군은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해 ‘인종청소’에 준하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으며 학살, 고문, 성폭행 등을 못 견뎌 인근 방글라데시로 도망친 로힝야족만 60만 명을 넘는다.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수치는 이런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 노벨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그가 졸업한 영국 옥스퍼드대는 교내에 설치됐던 그의 초상화를 철거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수치는 2017년 11월 인종청소 현장으로 지목된 서부 라카인주 마을을 둘러봤지만 “평화로운 삶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만 늘어남 보여 주기용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 ‘미투 촉발 장본인’ 하비 와인스타인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로 여배우들의 성폭행 피해 폭로가 잇달아 터져 나오며 미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귀네스 팰트로, 애슐리 저드, 앤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여배우들도 대거 포함됐다.

와인스타인은 민주당에 거액을 후원하는 큰 손이어서 성추문은 미 정계에도 큰 충격을 줬다. 또 이 사건으로 성폭력 경혐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되면서 성추문 파문이 케빈 스페이시, 더스틴 호프만 등 할리우드의 다른 배우들은 물론 전 세계 정관계와 예술계로까지 확산됐다.

영국에선 마이클 팰런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었으며, 미국의 코미디언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앨 프랭컨도 사퇴했다.

• ‘세계 최고 갑부’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로, 2017년 10월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 갑부에 올랐다. 온라인 유통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사업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주효했다. 8월 미국 유기농 식품점 홀푸드를 137억 달러(15조5천억원)에 인수한 것을 포함해 2017년 새롭게 넘보기 시작한 영역만 해도 스포츠 의류, 의약품 유통, 티켓 예매, 헬스케어 등으로 문어발을 방불케 했다.

덕분에 아마존 주가는 2017년 12월 현재 연초 대비 55% 치솟았고, 지분 16%를 보유한 베저스의 재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의 재산은 10월 28일 블룸버그 집계에 의하면 938억 달러(약 106조원)를 기록하며 게이츠를 꺾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

하지만 아마존이 막강한 자금력과 회원망을 앞세워 닥치는 대로 신사업에 뛰어든 탓에 경쟁사는 초토화됐다. 미국의 대표적 백화점 체인인 시어스가 350여 개 매장을 폐점한 것을 포함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피바람이 불었고, 69년 역사의 장난감 전문점 토이저러스는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베저스를 겨냥한 따가운 눈초리도 적지 않다. 그가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한 사이 게이츠는 막대한 재산을 기부금으로 내놨다. 2014년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뽑은 ‘세계 최악의 보스’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북미 재계를 대표하는 비인간적 고용주”라는 게 그 이유다.

• ‘외교 브레인’ 조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970년대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았던 ‘외교 브레인’으로 2017년 5월 26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78년 대립 중인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중재해 중동평화 협상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같은 해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 카터 행정부의 뜻을 전달했다.

퇴임 후인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에 반

대 목소리를 냈으며 2007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017년 2월에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문을 싣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 활동에 나서며 한국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2005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공개한 미국 기밀문서에 따르면 백악관 보좌관이던 브레진스키는 1980년 10월 카터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곳(백악관)의 구명 문제에 대한 사정을 살피고자 장교를 보냈다. 그에게 ‘김(김대중)이 사형을 받으면 미국 내 수많은 단체가 항의 시위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북한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명확히 알렸다.”고 썼다.

• ‘통일 독일의 주역’ 헬무트 콜 전 총리

헬무트 콜 전 총리가 6월 16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16년간 총리를 지낸 역대 최장수 총리인 그는 1982년부터 서독 총리로 재임하던 중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조기 통일론’을 주장하며 1990년 통일을 이뤄냈다.

독일 통일의 공을 인정받아 1990년과 1994년 총리 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했지만 독일 통일의 후유증으로 1998년 총선에서는 패배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 비자금 스캔дал마저 불거져 2002년 결국 정계에서 공식 은퇴했다.

그는 현재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시키고, 초고속 성장을 도와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스승’으로도 불렸다.



▲ 6월 16일 독일 베를린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방명록에 애도의 글을 쓰고 있다.

• ‘플레이보이 창업자’ 휴 헤프너

미국의 유명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창업자 휴 헤프너가 2017년 9월 27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잡지사에서 일하다 27세 때인 1953년 창간한 ‘플레이보이’는 과감한 여성 나체사진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성인잡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메릴린 먼로의 누드사진을 내건 창간호는 5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잡지의 인기에 힘입어 헤프너는 성인문화의 아이콘이 됐으며 그가 ‘플레이보이 맨션’이라고 이름 붙인 로스앤젤레스 저택은 유명 인사를 초청한 화려한 파티로 유명해졌다. 또 플레이보이의 토끼 모양 로고는 오늘날까지도 미국 성인문화의 국제적 상징으로 여겨진다.